

북 아트(Book Arts)의 발전 및 형성에 관한 연구 -아방가르드(Avant-garde)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Book Arts -Focused on the Avant-garde-

주자혜

동명정보대학원 컴퓨터그래픽전공

Joo, Ja-Hye

Graduate Dept. of Computer Graphic, Tongmyoung University of IT

홍동식

동명정보대학교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과

Hong, Dong-Sik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ept. Tongmyoung University of IT

• Key words: Book Arts, Avant-garde, Contemporary Art

1. 서론

오늘날 대량생산으로 인해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책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반면, 단시간에 폐기처분하고 새 책을 구입하기도 한다. 대량공급을 위한 기계 제본, 산성 종이와 값싼 재료의 사용으로 책은 질적으로 저하를 가져오며, 그래서 책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소모품화 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발전해 가면서 중요한 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를 찾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현대인의 진보적인 정보 찾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종이책의 촉감을 손끝으로 느끼며 한 장 한 장 페이지의 텍스트와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더욱 인간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북 아트는 주요 예술, 문학운동이 일어났을 때 선을 보였으며 20세기 예술 운동을 구성하는데 공헌을 했던 많은 전위적, 실험적이며, 독립적인 그룹 내에서 현실적인 작업의 독특한 수단으로써 제공되었다. 동시에 북 아트는 예술과 관계를 맺어 온 역사속에서 독자적인 영역으로써 발전되어 왔다고 한다.

현재 예술장르로 등장한 북 아트는 점차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의 대량복제에 반발하여 수공으로 직접 책을 제작함으로써, 책의 값어치를 높이고 회소성을 복원하여 지난날의 향수와 인간미를 되찾고 싶은 현대인의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책, 만지는 책인 북 아트는 아티스트들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북 아트(Book Arts)와 아방가르드(Avant-garde)

2-1. 북 아트(Book Arts)란?

북 아트(Book Arts)란 영어권에서는 '예술가가 만든 책(Artist's Book)', 불어권에서는 '미술가의 책(Livre d'artiste)' 또는 '책 오브제(Livre Objet)'라고 한다.

북 아트는 '예술에 관한 책(Art book)'과 '예술로서의 책(Artist's Book)'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아티스트 북'이라는 용어는 '아트 북'과 별개의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예술에 관한 책은 '아트 북(Art book)'으로서 판화와 같은 예술품을 책의 형식을 빌어 만든 것으로 흔히 유명한 화가나 조각가, 시인들의 작품을 모은 단순 개념의 그림책을 일컫는다. 둘째, 예술로서의 책은 '아티스트 북(Artist's Book)'으로 책이라는 대상을 형태로부터 인식하는 것으로서 문학적인 개념보다는 미술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 즉 책다움 'bookness'을 대상화, 시각화하는 예술적 행위를 '북 아트(Book Arts)'라

하고, 그 결과물을 아티스트 북(Artist's Book)이라고 한다.

책이 '정신의 도구'이지만 그림책이나 도록을 이야기할 때면 지적인 면보다는 우선 감성에 호소한다. 그리고 작가는 책을 쓰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 넣는다면 텍스트와 그림, 또는 작가와 화가를 한꺼번에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아티스트 북(Artist's Book)인 것이다. 1950년대, 60년대의 북 아트가 여러 예술작업과 상호작용하면서 정확하고, 저렴한 흑백 인쇄의 형식을 차용하여 발전했다면, 70년대에 와서는 북 아트는 용어가 정립되면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다.

'도록(Livre illustration)'과 '화가의 책(Livre de peintre)', 그리고 '아티스트 북(Artist's Book)'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혼용되어 언급되었던 전시회가 <아티스트와 책>(The Artist and the Book)이다. 이 전시는 1961년 보스턴 미술관에서 열렸는데 주로 클래식한 화가의 책이 주를 이루었고 책과 아티스트 그리고 화가를 맴도는 <아티스트와 책>(The Artist and the Book)이란 타이틀은 용어의 다양하고 교묘한 결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아티스트 북이라는 말 자체는 1973년 미국 필라델피아 무어 미술대학에서 <미술가들의 책>이란 전시회를 기획한 다이안 밴더립이 최초로 언급한 바 있으며, 같은 해 뉴욕 근대 미술관 사서인 클라이브 필포트(Clive Philpott)가 「스튜디오 인터내셔널(Studio International)」 7/8월호 칼럼에서 'Book Arts'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최초의 주요한 Book Arts 전시회는 런던의 지젤 그린우드 갤러리에서 1972년에 개최된 바 있다.

2-1. 아방가르드(Avant-garde)란?

미술용어 사전에서는 '아방가르드는 전위, 선두, 선구 등의 뜻으로 인습적인 권위와 전통에 반항, 혁명적인 예술운동의 가치를 내걸고 행동하는 예술운동으로 특정한 주의나 형식을 가지는 용어라기보다는 신세대의 급진적인 예술정신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방가르드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와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며 특히 현대미술과 아방가르드는 그 의미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혼동하여 사용할 만큼 근접한 관계를 가진다.

아방가르드(Avant-garde), 즉 전위(전위)는 원래 '전위부대'라는 뜻의 군사적 용어로서 전투 중 소속 부대를 엄호하기 위해 본대에서 떨어져 나와 전초에서 활동하는 소수 정예부대를 가리키는 프랑스적 어원을 갖는다. 전쟁용어로서의 그 기원은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르네상스 시대 무렵에 이르러 비로소 그 비유적인 의미를 갖추게 되며 정치, 종교, 문학, 예술과 관련된 아방가르드의 은유는 19세기 이전에는 일관성 있게

사용되지 않았다. 19세기 초엽에는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흔히 예술상으로 인습적인 권위와 전통에 대항하는 새 시대의 급진적인 예술경향을 가리키는 현대적 의미의 아방가르드 개념이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이후로 볼 수 있다.

20세기 초엽, 이탈리아의 미래파와 프랑스의 입체파, 그리고 독일의 표현주의가 크게 유행한 시기로 이 세 운동은 문학의 경우 상징주의, 그리고 미술의 경우 인상주의에 대한 강한 반작용으로 생겨났다. 1920년대로 비형식적이고 표현적인 추상을 시도한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운동이 성행한 시기로 아방가르드가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운 전성기에 해당된다. 1938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아방가르드의 운동은 점차 쇠퇴 길을 걷던 시기로 기하학적이고 실험적인 추상을 시도한 입체파, 데 슈틸, 절대주의의 시기에 이르는 아방가르드는 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부터 전쟁이 끝나기까지 기하 혁명적이라 할 만하던 창작능력을 거의 소진한 채 서서히 종말을 고하였다.

[표 2-1] 아방가르드 개념의 전개

시기	특징	미적 실체
1825년 생시몽	예술가의 전위적 임무 규정, 혁명적 수단으로 인식	반 전통성과 새로움 추구
19세기 후반	정치적 급진주의자와 예술적 급진주의자 공존	
20세기 초	예술적 극단주의와 실험정신 형성 (초현실주의, 다다, 미래파 등 등장)	
1.2차 대전 이전	전대의 가치체계와 전통 일반에 대한 부정적 정신이라는 세계관적 규정	

3. 아방가르드로부터 북 아트의 형성과정

본격적인 아티스트 북의 개념은 20세기 초 러시아 미래파작가들로부터 시작되는데, 전위적 미술 작업 속에서 책이라는 것이 독립된 오브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미래파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책의 미래를 열었다고 한다. 그것 자체가 기술적, 문화적 진보의 상징이며, 기계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와 자료를 동원하고자 했다. 재료와 도구에 대한 내면적 관심이 매우 높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형식과 레이아웃, 그리고 이미지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작업을 하였다. 거칠고 두꺼운 천을 표지에 쓰거나 벽지를 이용하고 여러 재료를 혼합하기도 했다. 그들의 작품과 함께 북 아트의 장르는 미술의 주류 속에서 책이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책다움(bookness)'의 요소를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으로 영역을 넓혀 갔다. 이러한 작업은 여러 형식과 재료로 형상화되었고 실험성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각과 행위예술 등에서 책의 아이디어를 차용하게 되면서 아티스트 북의 모습 또한 매우 다양하게 되었다. 미술가가 자신의 책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20세기 초의 대단히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고 한다.

20세기 초에는 많은 화가들이 북 아트에 관심을 가졌다. 상징주의·초현실주의와 같은 문학운동과 결부된 북 아트를 전개하였는데 마티스는 말라르메의 시를 에칭화로 그렸고, 로맹은

보들레의 <악의 꽃>을, 피카소는 엘뤼아르의 시를 그림으로 그렸다. 특히 비용이 적게 들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매체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자 했던 플렉서스 작가들과 개념미술 작가들이 북 아트를 선호하였다. 현대적인 북 아트작품으로는 에드워드 러샤(Edward Ruscha)가 팝아트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사진첩과 다이어터 로스(Dieter Roth)가 거리에서 주운쓰레기 조각을 모아 만든 책들도 있다.

4. 오늘날 북 아트의 경향과 아방가르드의 영향

북 아티스트들이 기타 상업적인 책과 아티스트 북을 구별하는 하나의 방법은 그 독특한 개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작가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기발한 오브제를 가지고 창조적인 북 아트 만들기를 해나가고 있다. 북 아트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시도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전자 북의 등장으로 책읽기에 혁명파도 같은 일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종이책의 촉감에서는 느끼는 친근함과 정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대량소비사회 속에서의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북 아트의 출현이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은 이런 이유이고 앞으로 더욱 각광 받을 수 있는 예술 장르이다. 세계적으로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런던 북 아트페어, 대만 북페어 등을 통해 나타나는 작품들을 살펴보면 아방가르드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북 아트는 기발하고 신선하고 조형성이 뛰어나며 개념을 중시하는 작품들이다. 이를 통해 북 아트의 최신 경향과 새로운 기법을 아방가르드적 시각에서 북 아트의 형성과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전과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5. 결 론

20세기 초부터 발전되어온 북 아트는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 개념이 확장되어 단순히 '미술가의 책'이 아니라 책의 형식을 취한 시각미술작품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아티스트 북은 예술가에 관해 쓰여진 글을 의미하지 않으며, 책을 재료로 한 조각도 아닌, 책을 매체로 한 예술이자 책의 형식을 취한 시각미술작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책의 형상을 한 이러한 작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Book Arts'이다.

개인의 감수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영역이며, 자신을 소박하게 담아서 아이디어와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혼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특한 자유로운 모양과 형태와 형식을 지님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각광받는 새롭고 예술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Art Book Art, 랜덤하우스중앙(주), 국립현대미술관, 2003
- 북아트 아트만들기, 601비상, 이명숙, 2004
-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오브제로서 bookarts의 활용방안과 새로운 paradigm 연구, 홍익대학교, 박지연, 2001
- 현대 북식에 표출된 아방가르드 의미의 패러다임적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엄소희, 1998
- 책은 오브제 예술이다, 아티스트북, 월간디자인, 송선재, 1997